

수입 유기농 차에서 잔류농약 검출

소비자원, 중국산에서 비펜쓰린 나와 ... 유기농 표시도 허위·과장

일부 수입 유기농 차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.

1월22일 한국소비자원이 30개의 수입산 차를 조사한 결과, 유기농 표시가 된 2개의 중국산 차에서 비펜쓰린 (Bifenthrin) 등 농약성분 2-7종이 발견됐다.

유기농 기준을 위반한 허위·과장 광고라고 소비자원은 판단했다.

해당제품은 <운남유지푸얼차 백년세월>, <유기농 진주 자스민차>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유기농이 아닌 일반 수입 차 24개 가운데 10개에서는 농약이 나오지 않았고 14개는 잔류 농약이 있었으나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.

소비자원은 수입 차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는 농약성분의 기준 설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하기로 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1/22>